

# 고전서사에 형상화된 노비의 존재성 탐구\*

김나영\*\*

## 차 례

1. 종속적 존재로서 노비의 존재성에 대한 문제 제기
2. 조선시대 노비의 유형과 노주의 노비 관리
3. 고전서사에 형상화된 노비의 역할과 기능
4. 고전서사에 형상화된 노비의 존재성

## ■ 국문 요약

본 논의는 조선시대 노비에 대한 인식을 고전서사에 형상화된 노비의 모습을 통해 살핀다. 고전서사 작품으로는 설화와 고전소설을 대상으로 하였다. 단, 노주에게 종속된 존재로서가 아닌 일상을 살아가는 주체적 인간으로서 노비의 존재성을 염두에 두고 접근하였다. 결과로서 고전서사 속에 형상화된 노비의 모습은 4가지로 정리할 수 있었다.

〈①노동력 제공자 및 생산자, 관리자: 개인의 삶과 사회 체제 유지에 관여〉〈②노주의 양육자 및 보호자, 대리자: 미성숙·미완의 노주 안전 보호 및 동반 성장〉〈③암묵적 경쟁자 혹은 극단적 적대자: 노주를 향한 시기 질투, 적대자로 변화 가능〉〈④경험적 정보 제공자

\* 이 논문은 2014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4041878).

\*\* 성신여대 인문과학연구소

혹은 행동적 지략가: 사건의 발단 및 노주의 판단 조력, 극단적 적대자)

종속된 비극적 존재라는 편견에서 벗어났을 때, 고전서사에 등장하는 노비에게서는 (단편적이고 비중 또한 크지 않지만) 의외로 다양하고 입체적인 모습을 추출할 수 있었다. 그것은 노비라는 존재에 내재된 '삶을 향한 강인한 생명력' 때문에 가능했다고 판단한다. 태어날 때부터 예속된 존재라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지만 그것으로 인해 덧씌운 편견 '억압'과 '저항'의 너울을 걷어내면, 삶에 대한 노비의 끈질긴 의지를 읽을 수 있다.

노비의 소유주-양반이 공식적으로 혹은 법제화하여 그토록 노비를 타자화하고 수단화하려 했던 이유에는 노비와의 공존 혹은 그에게 의존이 자신의 생명-삶을 존속시킬 수 있는 길임을 인지하고 있었던 심리적 모순도 작용했을 것으로 본다. 그리고 그러한 인식이 허구의 세계-설화와 고전소설 속에 은연중에 반영되고 삽입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주제어: 노비, 고전서사, 존재성, 일상, 노동력, 생명-삶, 생산자, 관리자, 양육자, 보호자, 경쟁자, 적대자

## 1. 종속적 존재로서 노비의 존재성에 대한 문제 제기

본 논의는 '노비'의 존재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한다. 아무리 시기를 늦게 잡아도 고조선 때부터 그 흔적이 감지되고, 1894년 갑오개혁으로 신분제도가 폐지될 때까지 신분구조상 가장 최하층으로 분류되었던 노비의 존재성 혹은 정체성에 대한 탐구이다. 단, 역사가 기억하는 노비의 시작은 고조선 때부터이지만 본 논의에서는 주로 조선시대의 노비에 대한 인식을 고전서사에 형상화된 노비의 모습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조선시대 신분구조는 실상 양천(良賤)과 반상(班常)의 이원적 구조를 기반으로 형성되었다.<sup>1)</sup> 때문에 천인(賤人)의 대립항은 양인 일반이며 양인층 내부에서 양반과 상민이 대립하여 존재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즉 노비는 양반·상민과 함께 조선시대 3대 주요 신분으로 존재했고 당시 인

1) 지승중, 「기획2-노비의 사회사: 노비와 양반」, 『역사비평』 36, 역사비평사, 1996.8, 11-70쪽.

구 구성비의 최소 30%를 차지했던 매우 중요한 사회 구성원이었다고 할 수 있다.

조선시대, 인간이기보다는 물적 자산으로 취급당해야 했던 노비는 신분 조건은 물론 영역과 역할이 제도적으로 규정된 신분 계층이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조선 때부터 전쟁 포로 혹은 형벌로서 노비의 신분을 부여했다는 기록이 있으니 노비라는 신분의 출현 자체에 지배층의 정치사회적 의도가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 때문에 지배층의 요구에 따라 노비제는 변화를 거듭했고 그에 맞추어 노비의 신분도, 삶도 결정되었다.

노비에 대한 지배층의 요구는 ‘노동’이었다. 노비의 기원이나 글자 모양에서 알 수 있듯,<sup>2)</sup> 노비는 타인에게 신분적으로 예측된 상태에서 노동에 종사해야 했다. 인간적 존중은 받지 못했으나 국가 생산 담당자로서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노비였기에 지배층은 노비제가 폐지될 때까지 노비의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침을 세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노비라는 존재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결코 역사의 중심부에 진입할 수 없었던 존재, 존재 자체가 ‘구속’과 ‘저항’의 프레임에 갇혀있는 존재,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상실한 존재였던 노비의 정체성 탐구를 목적으로 하되, 일단은 설화와 고전소설에 등장하여 활약하는 노비들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는다. 또한 실재했던 노비와 허구의 세계에 형상화된 노비의 모습을 비교해보면서 노비의 존재성·정체성을 구명해보고자 한다.

노비라는 어휘가 함의하는 정치사회적 배경 덕분에 역사 및 사회학 분야의 노비 연구는 오래 전부터 꾸준히 진행되고 성과 또한 축적된 반면<sup>3)</sup>

2) 노(奴)는 본래 남녀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했으며, 『설문해자(說文解字)』에 따르면 ‘又’는 ‘手’에서 비롯되었는데, 이를 근거로 10세기 중국학자 서현(徐鉉)은 ‘又’를 ‘손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으로 풀이하였다. 즉, ‘奴’에는 ‘노동’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김종성, 『조선노비들-천하지만 특별한』, 역사의 아침, 2014, 22-23쪽 참조)

3) 노비 제도의 역사적 추이와 시기에 따른 세부 규정의 변화 등 노비의 역할과 책무 등을 다룬 최근의 연구라면 김건태, 『조선시대 양반가의 농업경영』, 역사비평사, 2004; 이영훈, 「한국사 연구에서 노비제가 던지는 몇 가지 문제」, 『한국사 시민강

문학 작품과 노비의 관련성을 분석한 연구는 그에 비해 다양하지 않다. 창작이든 향유든 노비 계층은 문학 활동에서 한 걸음 떨어져 있었고, 문학 작품 내의 서사나 사건 진행에 노비가 중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는 드물었던 이유일 것이다. 그러다 보니 연구자의 관심을 끌기에도 역부족이었고 본격적 논의를 펼치기에도 난감한 부분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전서사와 노비의 관계를 해명하는, 본 논의와 긴밀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선행 연구를 살펴봄으로써 또 하나의 문제 제기를 하고자 한다.

노비와 서사문학 사이의 관계를 분석한 초기의 연구로 김순진의 연구를 들 수 있다.<sup>4)</sup> 노비가 주인공으로 등장하거나 노주 갈등이 드러나는 설화 자료(『한국구비문학대계』 전권 중심)를 뽑아 4개의 유형(추노형/양반 풍자형/남녀결합형/부의 성취형)으로 분류하고 서사단락과 갈등 해결방식을 분석하였다. 특히 노주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적대적이고 갈등이 노정되고 있다고 보고 ‘주종의 신분적 갈등, 빈부의 경제적 갈등, 남녀의 애정적 갈등’이 설화 유형에 중첩되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노주의 갈등이 첨예하게 드러난 각편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주노관계가 ‘적대적 갈등’ 관계에서 한정되고 있으나, 노비를 중심으로 한 본격적인 설화 유형 분류 연구로서 의의가 있다.

김현룡이 애정을 소재로 한 고소설에서 노비의 역할과 기능을 분석한 연구는<sup>5)</sup> 서사문학에 나타나는 노비의 역할을 조명한 성과다. 애정담이 전제가 된 소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노비의 캐릭터가 ‘애정 상대자로서

좌』 40, 일조각, 2007.2; 서종문, 「충노형 이야기와 반노형 이야기의 다름」, 『고전문학의 사회·역사적 소통』, 박문사, 2009; 정석중, 『조선전기 노비신분 연구』, 일조각, 1995; 전형택, 『조선 양반사회와 노비』, 문헌, 2010 등이 대표적이다. 노비제와 노비의 실상을 개괄하고 있어 노비 관련 서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4) 김순진, 「韓國 奴婢說話 研究」, 이화여대 대학원 박사논문, 1990, 1-154쪽.

5) 김현룡, 「고소설 애정 관련 노비 연구」, 『인문과학논총』 28, 건국대 인문과학연구소, 1995, 1-18쪽.

의 노비’, ‘애정 보조자로서의 노비’, ‘애정 방해자로서의 노비’로 한정되어 분석된 아쉬움이 있다. 결론의 “노비에 대한 건전한 판단력과 주체적 행동을 유도하는, 의식 변환을 꾀하고 있는 의도성의 표현”이라는 부분은 ‘노비의 주체성’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

김중균과 이병옥도 노비가 등장하는 고전소설의 유형과 의미, 기능 등을 연구하였다.<sup>6)</sup> 김중균은 <열녀춘향수절가>의 향단과 방자, <운영전>의 특, <숙향전>의 사향 등 14편의 고전소설에 등장하는 구체적인 인물들의 성격과 성향을 기준으로 ‘향단형(순종자형)’, ‘특형(음모자형)’으로 대별한 후 그 중간자적 존재 ‘방자형(위계사형)’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각 유형에 속하는 노비에게 각기 다른 5가지 사건에 개입하면서 주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따라 의미를 부여하였다.

이병옥은 8편의 영웅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기본적인 특성을 살펴 주인과의 관계에 따라 ‘충노형과 반노형’으로 대별한 후 충노형은 다시 ‘선주복종형과 악주복종형’으로 반노형은 ‘동반자살형, 탈출조력형, 변복피납형, 난세구제형’으로 세분하였다. 여기에 악주복종형의 경우 노비의 이해관계 포함 여부에 따라 ‘순수 악주복종형’, ‘변질된 악주복종형’으로 하위분류하였다. 그리고 노비문제가 영웅소설에서 수행하는 기능을 독자에 대한 기능, 주제에 대한 기능, 의미에 대한 기능으로 나누어 살폈다. 이 두 논문 모두 노주의 관계를 전제로 주인을 중심에 놓은 상태에서 노비의 유형을 분류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정준식은 문헌 소재 노비설화에 등장하는 노비에 관심을 두고 그 유형

6) 김중균, 「고소설에 나타난 노비의 성격 연구」, 건국대 대학원 석사논문, 1996, 1-156쪽(향단형은 순종적으로 주인을 따르면서 보호자·동반자로서의 의미를, 금섬형(향단형 중 금섬형)은 위기에 처한 주인을 구원하는 역할과 아울러 선악의 대립구조에서 주인의 선과 악을 극대화시키는 역할을, 특형은 주인에게 고난을 가하고 시련을 통해 바른 길을 나아가도록 이끄는 교도자의 의미를, 방자형은 주인의 순진함을 깨우치고 위선을 벗겨 진솔한 인간으로 성숙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고 하였다); 이병옥, 「영웅소설에 나타난 노비문제의 성격과 기능」, 경북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96, 1-94쪽.

을 ‘충노형/역노형/공존형’으로 설정한 후 각 유형마다 서사 내적 의미를 부여하였다.<sup>7)</sup> 정준식의 노비 유형은 양반과 노비 사이를 뚫을 기준으로 한 주노관계라는 점에서 수직적 유형 분류라고 판단된다. 또한 노비 중에서도 ‘추노’에 관심이 집중되면서<sup>8)</sup> 양반과 노비의 관계의 이분법적 갈등 구조가 특히 강조되기도 하였다.

김수진은 한문학 분야의 노비 연구 공백이라는 문제의식에서 16세기 말-19세기까지 양반 문집에 수록된 애제류(哀祭類), 전장(傳壯)·비지(碑誌)·기사류(記事類) 계열의 작품을 선별하여<sup>9)</sup> 그 속에 내재된 노비의 문학적 형상 4가지(충 이념의 전형/작고 연약한 대상/독립된 인격적 주체/희생하는 예속인)를 추출하였다. 조선시대 사대부의 시각에서 형상화된 노비를 유형화하고 그 의미를 추출한 의의가 있지만 ‘양반의 시각’이라는 전제로 인해 여전히 타자화된 노비의 형상에 집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최선경은 『청구야담』 소재 여노비담 10편을 대상으로 유형을 분류하고 이러한 여노비담이 지향하는 세계관을 설명하였다. 여노비의 유형은 여노비의 행위와 가치 지향을 중심으로 하여 ‘신분상승을 통한 인간 해방형’, ‘현모양처 지향형’, ‘주인에 대한 충성 지향형’으로 세분하였으며 이러한 여노비담에 나타난 이중적 세계관과 근대적 시선에 대해 언급하였다.<sup>10)</sup> 여노비담을 대상으로 한 유형 자체는 ‘중속된 여성’이라는 틀에 머

7) 정준식, 「문헌소재 노비설화의 유형과 의미」, 『한국 노비서사의 논리와 미학』, 월인, 2005, 183-210쪽(충노형 설화는 주인을 충심으로 섬긴 노비에 관한 이야기로, 이 유형의 노비는 ‘지배-피지배’의 중세적 지배구조를 운명적으로 받아들여 끝까지 노주지분(奴主之分)을 어기지 않는다 하였다. 역노형은 주인을 배반하거나 주인에게 저항한 노비에 관한 이야기로, 이 유형의 노비는 신분제의 질곡에서 벗어나기 위해 적극적으로 투쟁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하였다. 공존형인 경우는 충노와 역노를 함께 설정하여 이들의 행위를 대비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로 충노의 행위에 긍정을 표시한다 하였다.)

8) \_\_\_\_\_, 「추노계 야담의 소설적 변용」, 같은 책, 69-91쪽.

9) 김수진, 「노비를 보는 몇 개의 시각」, 『민족문화사연구』 53, 민족문화사학회 민족문화사연구소, 2013, 224-254쪽.

10) 최선경, 『청구야담』 소재 여노비담의 존재 양상과 의미, 『인간연구』 29, 가톨릭대

문 듯하나 세부적으로는 ‘인간 자체의 노력’과 긍정적 이미지를 추출해내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

고전서사에 등장하는 노비에 관한 선행 연구는 설화와 소설 속 노비들의 다양한 성향과 서사적 기능을 밝혀내어 당대 노비에 대한 인식을 비추어본다는 측면에서 본 논의와 상통하는 면이 있다. 다만 본 논의가 기존의 노비 연구와 구별되는 점은, 노비의 존재를 제도적으로 신분이 규정된 노비가 아닌 독립적 개체로서의 노비를 인정하는 데서 출발한다는 데 있다.

고전서사 속 노비의 형상을 밝히는 연구에서 발견되는 공통점은 암묵적으로라도 노비와 노주 사이의 수직적 주종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노비의 출현은 노비의 관리자인 지배계층의 필요에 의해서였고 그 지배계층-소유자와의 관계 속에서 신분이 규정되었으니, 노비의 존재를 해명하기 위해 노주와의 관계를 배제할 수 없음을 당연하다. 그러나 그 관계는 노비를 해명하는 데 있어 늘 종속된 존재, 타자화된 존재로 규정하게 하였으며 노비의 속성이나 역할은 노주를 향한 의무의 이행 또는 과기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하였다. 본 논의는 바로 노비를 바라보는 이러한 관점에서 벗어나고자 한다.

어떤 한 개인으로서 노비에게 신분적 구속이 생래적인 것이고 선택 불가능한 삶의 조건이라면, 그것은 그것대로 노비가 살아가야 할 세계이다. 그리고 그 세계를 이미 살아가는 이상 노비는 그 자체로서 자신의 삶을 영위

---

학교 인간학연구소, 2015, 135~159쪽.(이중적 세계관은 3가지 측면에서 논의하였다. ①인간 해방을 추구하는 주체적이고 능동적이 여성상이 긍정되는가 하면 남편의 성취를 위해 인내하며 자신을 희생하는 전통적 여성상이 칭송되는 점, ②성에 있어서도 주도적으로 남성을 유혹하고 정절을 과감히 버리는 여성에 대한 긍정적 시각이 존재하는 한편 남편을 위해 목숨을 버리거나 남편을 따라 죽는 열녀의 형상이 긍정되는 점, ③자본에 있어서 현실적 이익을 좇아 부를 축적하고 신분 해방을 이룬 노비에 대한 긍정적 시선이 존재하는가 하면 도망노비를 벌하고 도망노비와의 대립에서 승리하는 양반을 그림으로써 기득권을 유지한 채 양반으로서 신분을 공고히 하는 욕망을 표면화한 점을 설명하였다. 또한 ①귀속적 신분이 아닌, 인간의 노력 그 자체에 대한 의미 부여와 ②최하층 여성에서 지혜, 부유, 의지적, 적극적, 능동적 이미지를 발견해낸 새로운 시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하는 주체적 존재였을 것이다. 말하자면 노비라는 존재를 주인의 명령에 따라 행동하는 종속적인 존재가 아니라, 그 명령이라 규정된 어떤 행위를 수행하는 주체적인 존재로서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제도적으로 혹은 공식적으로 소유주에게 종속된 존재였다 하더라도, 실제 삶의 순간마다 노주 앞에 ‘사람’으로서 마주했을 노비, 자기 삶의 주체로서 고민하고 행동했을 노비에 보다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sup>11)</sup>

노비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노비로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지배층의 목적에 의해 인위적으로 신분이 규정되었을 뿐인 똑같은 ‘사람’이었음을 전제로 고전서사에 노비로 등장하는 인물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본 논의는 다음의 세 가지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관점을 달리함으로써 고전서사에 등장하는 노비의 모습이 보다 다양하고 입체적일 수 있음을 알게 된다. 둘째, 표면적으로는 허구의 세계에 등장하는 노비의 모습이 실재했던 노비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이면적으로는 노비의 능력이나 사건의 개입이 보다 적극적으로 허용됨으로써 노비의 형상과 역할이 보다 다양해졌음을 알게 된다. 셋째, 제도적으로 끊임없이 노비를 수단화하고 구속하려 했던 이유에는 노비의 ‘살아있음을 향한 강인한 생명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음을 인지했던 지배계층—양반의 심리적 모순이 작용했을 가능성도 유추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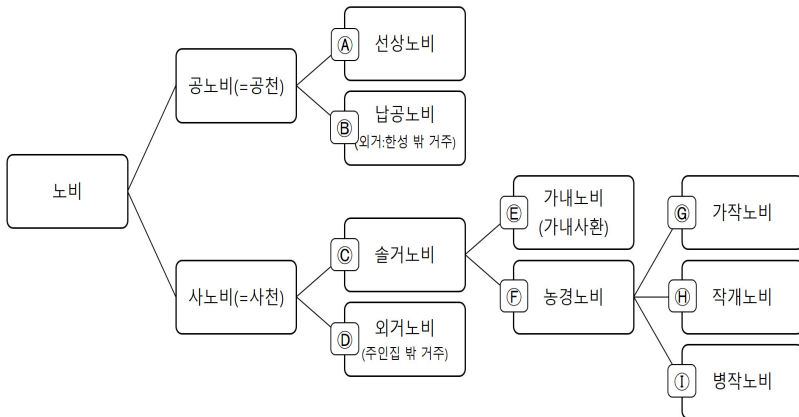
이것이 곧 주체적 인간으로서 지니는 노비의 존재성·정체성이다.<sup>12)</sup>

11) 이러한 문제의식에 영감을 준 연구는 김종성, 앞의 책; 이해정, 「16세기 노비의 삶과 의식세계—『목재일기』를 중심으로」, 경희대 대학원 박사논문, 2012, 「노비의 삶에 접근하는 몇 가지 방법」, 『역사연구』 24, 역사학연구소, 2013.6.

12) 본 논의의 목적은 노비의 유형을 규정하고 분류하는 데에 있지 않다. 노비로 등장하는 인물들의 말과 행동을 구체적으로 살펴 고전서사 작품을 유통했던 주체들, 즉 작가와 독자(청자)의 인식 속에 자리하고 있는 인간으로서 노비의 존재, 그리고 그것이 지닌 의미를 추출해보고자 한다.

## 2. 조선시대 노비의 유형과 노주의 노비 관리

고전서사 속에 등장하는 노비의 언행을 이해하기 위해 실제 노비의 유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비교적 간략한 노비 유형의 지형은 다음과 같다.<sup>13)</sup>



노비는 소유주가 국가나 개인이냐에 따라 가장 먼저 공노비와 사노비로 구분된다. 공노비는 공천(公賤)이라고도 하는데, 『성호사설』에 따르면 내노(內奴:왕실 내수사에 속한 노비), 사노(寺奴:중앙 관청의 노비), 역노(驛奴:역참에 속한 노비), 교노(校奴:향교 같은 교육기관에 속한 노비), 읍노(邑奴:지방 관청의 노비) 등의 포함되었다. 사노비는 일반적으로 사족과<sup>14)</sup> 서민이 소유주인 노비를 의미하며 사천(私賤)이라고도 칭한다.

13) 여기에 제시하는 노비의 유형은 지승중, 앞의 글, 73-86쪽; 김종성, 앞의 책, 73-100쪽; 김진태, 『동사짓는 작인, 수취하는 지주-양반들의 농업경영』, 『조선시대사』, 푸른역사, 2015, 179-182쪽을 참조하여 정리하였다.

14) '사족'은 국가로부터 공적 지위를 받은 사람들로 '사대부의 가문'을 뜻한다. 관련 용어로 '양반'은 문관과 무관을 합친 말로, 국가로부터 관직 혹은 작위를 받은 사람들을 의미했다. 조선 초기에만 해도 사족과 양반은 동일한 개념이었으나 양반은 점차 '중앙이나 지방의 명문가'를 가리키는 말로 변화되었고 16세기가 지나면서 사족과 양반은 구별되었다.(김종성, 앞의 책, 80쪽 참조)

공노비는 다시 ㉠선상(選上)노비와 ㉡납공(納貢)노비로 하위 분류된다. ㉠은 지방에서 뽑혀 서울 관아에 보내진 노비를 가리키며, 그들은 관청에 나가 노동력을 제공하는 사역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관청에 가지 않고 현물을 제공하는, 공물 납부의 의무를 지니는 노비가 ㉡다. 공노비는 ㉠든 ㉡든 자기집에서 출퇴근했기 때문에 솔거노비는 규정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대신 한성에 거주했던 경거노비들은 대부분 관청에 속한 노비들이었기 때문에 납공노비가 없었고, 한성 밖에서 국유지를 경작하는 노비들이 납공노비가 되었다. 공노비 중에 한성 밖에서 거주하는 납공노비를 외거노비로 다루기도 하는데 이때의 외거는 ‘한성 밖’의 지역에서 거주함을 가리킨다고 보아, 공노비의 납공노비는 ‘지방의 관노비’에 해당한다.

사노비는 ㉢솔거노비와 ㉣외거노비로 하위 분류되는데, 이때의 외거가 ‘주인집 밖 거주’라는 의미를 지닌다. ㉢가 바로 고전서사 속에 빈번히 등장하는 노비 유형이다. 소유주의 집에 거주하며 가내의 모든 일을 담당하기에 가내사환(家內使喚) 노비로 일컬어지며 역시 사역의 의무(노동력의 제공)를 지닌다. 가내사환은 주인에 대한 시중과 수행, 그리고 가사노동을 중심으로 일을 맡는다. 소유주의 집-주가(主家)의 유지를 위해 ㉢의 대부분은 가사노동에 종사하였다. 대표적으로 밥 짓거나 상 차리는 일을 맡은 노비를 주비(廚婢)·취비(炊婢)·찬비(饌婢)라고도 했다. 땀나무를 장만하거나 물을 길는 일, 곡식을 찧는 일도 모두 가내노비의 담당이었는데, 부신급수(負薪汲水)·부급(負汲)·신수(薪水)·정구(井臼) 등이 이에 해당하는 상징적 표현이었다.

가내노비 중에서 집안 살림보다 노주 곁에 항상 대령하면서 갖은 사환에 응하는 경우를 ‘시중’, 노주가 원근 출타할 때 모시고 따라나서는 경우를 ‘수행’이라고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동일한 의미를 지닌다. 시중을 위해 남성 노주에게 딸린 시비는 대개 비첩(婢妾)으로서 성적 대상이 되거나 주악·가무 등을 통해 주인의 정서적 욕구 충족에 기여한다. 악기를 연주하며 노래 부르는 노비 가비(歌婢)는 노주에게 즐거움과 위안을 주었다.

시중드는 노비 중에 유모는 조금 더 특별했다. 유모의 은공은 수양부모보다 높이 평가될 정도로 비록 노비였다. 시중을 드는 시비나 유모는 고전서사 주인공과 함께 등장하여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며 서사의 진행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는 노비 유형이다.

편지를 비롯한 원근 각처에 소식을 전달하는 노비는 시를 전해주는 사자 역할도 담당했다. 노주가 외출할 때 말을 이용하는 경우 마부 역할은 물론,<sup>15)</sup> 일정한 곳에 장기간 머물면서 노비의 시중을 필요로 하는 경우, 혼례 등 특정한 의식과 관련하여 구색을 갖추어야 할 경우, 귀양살이나 종군의 경우에도 노비를 수행시켰다. 노주-사족이나 양반들의 모든 삶은 노비로 시작하고 노비로 인해 영위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㉔솔거노비 중에 농업노동에 투입된 노비가 ㉕농경노비가 된다.<sup>16)</sup> 노주의 농경 개입과 생산물 수취의 방법에 따라 ㉖가작(家作)노비 ㉗작개(作介)노비 ㉘병작(竝作)노비로 세분된다. ㉖는 노주가 노비를 동원하여 농사를 짓게 하고 그 수확물 전부를 차지하는 농업방식에 투입된 노비다. 가작노비에게는 토지가 주어지지 않으며 노동의 대가도 식사 정도였다. ㉗는 노주가 노비에게 일정한 토지를 배분하면 자신의 노동력을 투입하여 경작하고, 해당 토지로부터 나오는 수확물을 노주가 차지하는 농업방식에 투입된 노비다. 가작노비와 달리 작개노비에게는 별도로 할당되는 토지가 있었다. ㉘는 노비제와 무관하게 운영되는 농업경영방식인데 지주로부터 토지를 빌린 작인이 노동력을 투입하여 경작을 하고 그 수확물을 지주와 나누는 농업방식에 투입된 노비다.

15) 말을 모는 채찍을 잡는다는 ‘집편(執鞭)’은 ‘노비가 되어 주인을 섬긴다’는 의미를 상징하기도 한다. 노마(奴馬)·마복(馬僕)·마종(馬從)이 모두 노비와 말을 결합한 형태의 용어다(지승중, 앞의 글, 320쪽).

16) 조선은 농업사회였고 노비가 주된 노동력이었으므로 조선시대 노비는 주로 농민의 모습을 띠 수밖에 없었다. 사노비 중에서도 외거노비는 특히 그랬다. 솔거노비 외의 노비들 중에는 자작농도 많이 있었다. 외거노비는 주인집의 농토를 경작하면서 자신의 농토를 경작할 수 있었다. 남공노비도 국유지를 경작하면서 사유지를 경작할 수 있었고, 선상노비도 사유지 경작이 가능했다(김종성, 앞의 책, 151쪽).

①는 노주의 집 밖에 독립적인 주택과 농토를 가진 노비다. 자기 집과 농토를 법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다. 외거노비는 해마다 주가에 바치는 공물인 세공을 납부해야 했고 노주의 제사에도 참석해야 했다.

이렇듯 노주라 할 수 있는 양반-사족들의 삶은 노비 없이 이루어질 수 없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1468년 6월 18일 사헌부 대사헌 양성지 등이 세조에게 올린 상소문에 “우리 국가의 노비의 법은 그것을 숭상하면서부터 사대부가 의지하여 사는 것입니다. (...) 대저 전지(田地)는 사람의 명맥(命脈)이며 노비는 선비의 수족이라 경중이 서로 같으니 편벽되게 폐(廢)할 수 없습니다.”<sup>17)</sup>라고 언급했듯 양반은 그들의 생존 수단으로서 토지와 노비를 동일하게 여기고 중시했던 것이다.

그만큼 삶의 조건으로서 노비의 존재가 절대 필수적이었던 만큼 양반-사족의 노비에 대한 경계 또한 매우 엄격하였다. 표면적으로 노비의 소유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노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은위(恩威)’ 병행의 자세를 강조하였지만 내부적으로는 노비로 인한 기강의 해이를 우려하며 관리와 제제에 고심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17-18세기 문집에 실린, 노비와 노비 관리에 관한 글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신분제 동요가 심하고 노비들이 일탈이 빈번했던 조선 후기에, 노비에 대한 당대 양반 지배계층 인식의 단면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노비의 경우 ‘가법(家法)’에 의거하여 사형(私刑)으로써 직접 통제가 가능했기에 노비에 대한 노주의 권한은 절대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① **비첩(婢妾)의 무리는 또한 천대하고, 첩(妾)의 예로는 대하지 못한다.**

② 문하(門下)의 잡객(雜客)은 비록 서로 친하더라도 예(禮)

17) 我國家奴婢之法，其來尙矣，而士大夫倚以爲生者也。(중략) 夫田地，人之命脈；奴婢，士之手足。輕重相等，不可偏廢。(『조선왕조실록』 「세조실록」 46권, 세조 14년 6월 18일 丙午)

로서 대접하되 집안에 참여하여 일가(一家)에 틈을 내지 못하게 하며, 또한 친척이나 친구보다 더함이 있어서는 아니 되고 아랫것들도 또한 그렇게 할 것이며, **남녀 종과 첩의 무리들은 반드시 몹시 놀려서 친숙하고 믿음으로써 한 집안에 끼이지 못하게 하여라.** 무릇 양반은 한 무리가 되고 뜻을 같이하며, **비첩(婢妾)은 비록 친하더라도 한마디 말도 그사이에 끼지 못하게 하여라.**

- ㉔ **주인을 높이고 노비를 누를 것이다.** 임금을 높이고 신하를 낮춘다는 것은 국가에 있어서는 어진 자가 뜻을 펴지 못하고, 그를 예로 대접하지 못하며, 또한 하정(下情)을 다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지만 집에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다하지 못하는 정(情)이란 없을 것이다. **소제하고 심부름하는 사람에게 무슨 도(道)를 행하고 식견을 펼 만한 것이 있겠는가.**
- ㉕ **아이들은 비록 어리고 노비는 비록 어른이라도 반드시 주인에게 죄장(罪杖) 죄가 있으면 때리는 것)과 사령(使令 심부름 시키는 것)을 주관케 하여라.** 비록 어릴 때부터라도 주인의 권한을 손에 넣게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뒤에 반드시 대항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노비로서 아이들을 만만히 여겨서 공경하지 않는 자가 있거든 이를 엄하게 금지할 것이다. 그러나 공 있는 늙은 자는 내보낼 수 있으면 내보내되, 만약 부린다면 아이들의 심부름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 ㉖ **신부(新婦)도 역시 노비를 죄책(罪責)하는 권한을 주관하게 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참견과 이간이 들어오고 불공함이 많을 것이다. 또한 자녀에서는 노비는 피차를 구별하지 말고 심부름과 죄벌을 한 가지로 하여라. 그렇게 아니하면 저쪽에 붙어서 이쪽을 힐뜯고, 이쪽에 붙어서 저쪽을 속이는 자가 많을 것이다.
- ㉗ **대체로 종이란 것은 비록 어른이 부리는 바로, 사람이 함부로 죄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양반은 어른 아이가 없이 마땅히 일체가 될 것이다.** 또한 노비가 어른을 믿고 아이들과 부녀들을 만만히 여기면 뒷날에는 종노릇을 아니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어른인 종에 대해서는 반드시 처음부터 권한을 주관하도록 하여라.
- ㉘ 그러나 아랫것을 부리되 평일에는 굶주리고 추운 것을 구휼

하여 은혜와 의리를 잘 갖추어서 정성과 신의로 대접하여 은혜가 있도록 할 것이며, 죄가 있을 때에는 법을 세우기를 엄하게 하여 용서치 말 것이며, 이를 가법으로 세울 것이다.<sup>18)</sup>

인용문은 정제두(1649-1736)의 『하곡집』 「家法」에 실린 16개 항목 중 노비와 관련된 7개 항목이다. 집안의 법도를 제시하는데, 노비에 관한 항목이 절반을 차지한다는 것은 곧 노비를 관리하는 일이 그만큼 중요하고 어려웠다는 반증일 것이다.

7개 항목 전체적으로는 노비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권고하고 있다. ㉠, ㉡은 첩 중에서도 비첩에게는 예로 대하지 않아도 되고 천대할 것이며 남녀 종과 더불어 한 집안에 함부로 간여하지 못하도록 경계한다. 노비와 노비 출신에게는 양반 무리로 진입할 수 있는 한 치의 틈도 허용하지 않겠

18) ㉠婢妾輩亦賤之不得爲妾例, ㉡門下雜客雖相善, 待之以禮, 不得使與間於一家, 且不得有加於親戚朋友, 下流亦然, 奴婢妾輩, 必痛抑不得親信, 以間一家, 凡兩班爲一黨同意, 婢妾雖親, 不得使一言間於其間, ㉢尊主抑奴婢, 凡尊君卑臣, 在國家則賢者不伸, 待之不禮矣, 且下情不盡也, 家則不然, 無不盡之情, 掃除使喚之人, 有何行道識見之可伸者, 故只當峻防, 以嚴家法而已, ㉣兒子雖幼, 奴婢雖長, 必使主其罪杖使令, 雖自小時, 使主權入其手, 不然後必有杆格也, 且奴婢有謾兒輩不敬者痛禁之, 但有功老者放之則放之, 若使之則不可不爲兒輩使令也, ㉤新婦亦使主罪責奴婢之權, 不然讒間入之, 不恭多矣, 且奴婢於子女, 不可有彼此之別, 使之一體使令罪罰, 不然付彼而讒此, 托此而謾彼者多矣, ㉥夫奴雖曰尊者所使, 不宜人人擅之罪之, 然兩班無長小當爲一體, 且奴婢侍長者而謾兒輩及婦女也, 後日終於不奴而已, 故長者必自初使之主權, ㉦但使下平日恤其飢寒, 恩義備至, 待之誠信有恩, 至於罪也則立法嚴而不容貸, 以立家法, (鄭齊斗, 「家法」, 『霞谷集』 권7, 『한국문집총간』 165, 한국고전번역원, 1995); 정병철·마크 피터슨은 「조선문학과 노비」, 『진단학보』 87, 진단학회, 1999.6. 68-70쪽에서 정제두의 「家法」 외에 박필주(1680-1748)의 「戒論家衆」도 언급한다. 박필주는 그의 문집 『黎湖集』(권32 「雜錄」, 『한국문집총간』 197, 한국고전번역원, 1997)에서 노비가 지켜야 할 항목을 8가지를 제시하였다.

- |                                  |                                     |
|----------------------------------|-------------------------------------|
| 一. 畏上典. (상전을 두려워하라)              | 一. 勿多言. (말을 많이 하지 마라)               |
| 一. 知長少. (나이든 사람과 어린 사람을<br>분별하라) | 一. 不飲酒. (술을 마시지 마라)                 |
| 一. 勿欺罔. (속이거나 이간질하지 마라)          | 一. 勿怙勢. (주인의 세력을 믿고 함부로<br>행동하지 마라) |
| 一. 戒貪心. (탐하는 마음을 경계하라)           | 一. 和隣比. (이웃과 화목하게 지내라)              |

다는 의지를 읽을 수 있다. ㉔은 소제하고 심부름하는 노비는 인간적 도리의 범위 밖에 존재하고 있음을 재확인한다. ㉕~㉗은 노비를 억압해야 하는 이유를 알 수 있는 항목이다. 주인에게 강력한 권한이 없으면 뒷날 노비가 대항할 것이며, 죄책하지 않으면 이간질하는 노비가 많아질 것이라 경계하고 있다. 나이가 많은 노비라 할지라도 부녀나 아이들도 똑같이 노비를 강제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노비들이 만만하게 여겨 종노릇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한다. ㉘에서야 비로소 노비를 관리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평소에는 혹독하게 다루되, 어려울 때를 가려 구휼하고 정성과 신의로 대접하여 은혜를 베풀고, 죄가 있을 때에 법에 따라 엄하게 다스릴 것을 권고하고 있다.

결국 「가법」의 7개 항목은 노비계층을 철저히 억압하되, 주인이 없으면 추위와 굶주림에서 벗어날 수 없으리라는 인식을 노비에게 심어주어야 가내 질서가 유지될 수 있음을 문서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노비의 소유주인 양반에게 노비란, 그들의 ‘양반다운’ 삶을 보장해주는 절대 필수적인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노비의 생각과 행동을 제어하지 않는다면 끊임 없이 양반 계층을 위협하고 도발할 수 있는 존재로 인식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노비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그들의 존재를 수단화하고 물화하려 했던 양반들의 노력과 이에 맞서 자신의 존재성을 입증하려는 노비 사이의 갈등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고전서사에 등장하는 노비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실제 양반계층이 노비라는 존재를 억압하려 했던 이유를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비록 주인공으로 등장하지 않는다 해도 서사 속 노비의 역할은 그렇게 단순하지도 획일적이지도 않을 뿐 아니라 양반계층이 일부러라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그들의 인간적 면모와 타고난 능력이 감지되기 때문이다.

또한 양반들이 우려했던 노비의 불복종·속임수·이간질·저항 등의 행위를 악인형 노비에게 부여하여 서사화함으로써 노비에 대한 경계와 경각심을 높이는 효과도 얻고 있다.

### 3. 고전서사에 형상화된 노비의 역할과 기능

고전서사에 등장하는 노비는 대부분 가내노비인 경우가 많은데, 그들 노비들에게 주어진 임무와 노주와의 관계가 서사 속에 어떻게 형상화되었는지를 살핀다. 제도적으로 혹은 규범적으로 신분이 규정된 노비, 소유주의 입장에서 본 노비의 속성보다는 이미 주어진 제한된 세계에 살았던 노비의 모습에 접근하고자 한다. 그들은 자신에게 부여된 세계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그들의 행위가 노비와 노주의 삶에 어떻게 기능하는지에 집중하고자 한다. 이러한 접근 방법은 노비를 ‘구속’의 틀에 가두어 보지 않으려는 시도며, 노비 자체의 존재성을 파악하고자 하는 목적을 염두에 둔 것이다.

#### (1) 노동력 제공자 및 생산자, 관리자

##### : 개인의 삶과 사회 체제 유지에 관여

노비의 본질은 ‘노동’이고, 그 노동은 개인의 삶과 사회 체제를 유지하는 원동력이다. 특히 육체적 노동을 거부했던 양반-사족 등의 지배계층에게 노비의 노동력은 노비의 삶은 물론 양반의 삶을 존속하기 위한 절대적 조건이었다. 노비의 노동은 물적 재화를 생산 가능하게 하고 그 물적 재화는 인간의 의식주를 해결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세경본풀이>의 김진국대감이 먹고 살게 해줄 노동을 하는 존재는 사람을 죽고 살리는 잘난 딸이 아니라 노비 정수남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으니, 그것이 곧 조선시대 현실이다.

<세경본풀이>에는 남녀 가내노비가 모두 등장한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주가의 의식주를 책임지고 있음을 선명하게 드러낸다.

“너는 어떤 일로 손발이 헤영하게 고와지느냐?”

“상전님아, 흔 일은 알곡 두 일은 모른 상전님이로고나, 주친강 언뫼디 연서답을 가고 보민 손 살이 헤영하게 고와집네다.”

느진덕정하님(=여비)의 손이 하얗고 고운 것을 본 주인아가씨 자청비의 질문에 여중 정술택이가 빨래를 하다 보니 그렇게 되었다 대답하는 장면이다. ‘빨래’라는 단어에서 여중 정술택이의 역할이 의(衣)와 관련됨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다. 자청비의 명령으로 땀감을 마련하고 가족에게 풀을 먹이러 나갔다가 옷을 모두 도둑맞고 벌거벗은 채로 주인 아가씨 몰래 장독대로 숨어든 남중 정수남을 가장 먼저 발견한 이 또한 정술택이다. 저녁밥을 짓기 위해 국에 장을 넣으려고 장독대로 나갔다가 정수남을 발견했다고 자청비에게 알리는 장면이 있다. ‘저녁밥-국과 장-장독대’라는 키워드에서 정술택이는 주가의 식사를 담당하고 있는 취비임을 알 수 있다.

남중 정수남이 가내노동에 동참하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게으른 정수남을 불러낸 주인아가씨 자청비가 “다른집 수머슴들은 저절로 죽은 삭정이를 주워 실어 소머리에는 철쭉, 진달래를 꽂아놓고 어령떠령 오는 것이 오죽 보기 좋으나?”며 나무라자, 정수남은 다음날로 소길마, 마길마, 도끼 잠방이를 차려 굴미굴산 숲속으로 들어간다. ‘소와 말-도끼’라는 단어에서 정수남의 역할 또한 짐작할 수 있다.

이렇듯 정술택이와 정수남이 책임지는 가내노동의 중요성은, 자신을 육보이려는 정수남을 죽이고 왔다는 딸 자청비의 말에 “너넨은 놈의 집에 씨텍가민 그만이며, 그 종은 살려두민 우리 ‘두 늙은이 먹을 오몽(노동)은’ 허여 준다.”는 김진국대감의 호통에서 여실히 드러나며 그것은 비단의식주를 해결해준다는 의미를 넘어 ‘살아있음’과 직결되는 노비의 존재를 실감하게 한다.

그런데 단순히 밥을 짓고 빨래하고 땀감을 장만하는 일 외에 성실하고 영특한 노비에게 주가 전반의 살림살이를 일임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노비가 가족 구성원의 내밀한 영역까지 관여하며 가내 질서와 체제를 흔드는 동력이 될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한다. 실제로 고전서사에 등장하는 시비 중에는 상전의 지극히 사적인 공간까지 출입이 자유로워 귀중한 세간의 보관 장소나 그 사연까지 파악하는 일 정도는 손쉽게 완수한다. 때

문에 시비가 악의를 품게 되는 경우 상전의 귀중품을 훔쳐내거나 부적을 숨겨 가족 구성원 사이의 애정과 신뢰를 무너뜨리고 가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모함과 음해에 적극 가담할 수 있는 것이다. <숙향전>의 사향, <숙영낭자전>의 매월, <옥루몽>의 춘월 등이 이 경우에 해당하는 인물일 텐데,<sup>19)</sup> 악행에 가담하는 순간 이들 노비는 노동력의 제공자에서 주인공의 경쟁자 혹은 적대자로서 위치 전환하게 된다.<sup>20)</sup>

선시의 공이 길동을 나흘 썩의 일몽을 어드니, 문득 뇌정벽벽이 진동하며 청룡이 슈염을 거스리고 공의혜 향하여 다라들거늘, 놀나 찌다르니 일장춘몽이라. **심중의 퇴회하여 심각하되, ‘넋 이제 룡몽을 어더시니 반딧 귀흔 죽식을 나흐리라.’** 하고 즉시 넋당으로 드러가내 부인 뉴시 니러 맞거늘, 그 옥슈를 닛그려 정이 친압고져 흐거늘 부인이 정식 왈, (중략) 언파의 손을 썰치고 나가거늘, 공이 무류하여 분귀를 춤지 못하고 외당의 나와 부인의 지식이 업스믈 한탄하더니, **맞참 시비 춘섬이 츳틀 울니거늘 그 고요함을 인하여 춘섬을 잇글고 협실의 드러가 정이 친압하니** 이썬 춘섬의 나히 십팔이라. 흥번 몸을 허흔 후로 문외의 나지 아니하고 타인을 취홀 뜻이 업스니 **공이 기특이 녀여 인하여 잉첩을 삼아더니, 과연 그 달부터 티긔 잇서 십삭만의 일기 육동을 침하니,**

<홍길동전>의 서두며, 홍길동의 탄생담 부분이다. 눈여겨 볼 인물은 춘섬이다. 가내노비로 노주의 일상을 시중드는 시비 춘섬은 평소와 다름없이 차를 올리러 외당에 들었다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노주와 친압하고, 그날 이후 스스로 몸을 가려 지내니 주인이 이를 기특하게 여겨 잉첩으로 삼아 결국 아들까지 낳게 된 사연이 한번에 설명되고 있다. 여성

19) 이들은 경쟁자 혹은 적대자로서의 노비 항목에서 다루도록 한다.

20) <사씨남정기>의 동청은 노비가 아닌 서사(書士)이기는 했지만 집안의 물품과 문서를 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후일 교씨와 함께 공모하여 유한림의 재산을 빼돌려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이다. 실제로 조선후기 세력을 잃은 주인 양반의 가족을 몰살하고 재산마저 몰수하여 도망하는 반노들이 존재했다.

노비는 남성 노주의 성적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운(또는 순응해야 하는) 존재며 운이 좋은 경우 첩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존재임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 장면은 주로 영웅 홍길동의 비정상적 탄생 과정이나 양반 남성의 여성 노비에 대한 강압적·수단적 성적 행위라는 분석이 덧붙었지만 본 논의는 여성 노비 춘심의 존재성 변화에 초점을 둔다. 즉 홍판서는 이 장면에서 단순한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시비 춘심을 취한 것이 아니라 후사를 목적으로 춘심과 친압하였다. 그것은 홍판서를 거절한 부인의 역할이 춘심에게 이입된 상황으로, 여성 노비 춘심을 어머니로서의 여성-아들을 낳아줄 존재로 인식한 데서 비롯된 결과라고 보는 것이다. 논의를 좀더 확장한다면 여성 노비는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옷을 만드는 물적 재화의 생산자이기도 하지만 생명을 잉태하는 인적 자원의 생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이기도 하다.

실제로 노주는 노비의 혼인에 비교적 호의적이었다.<sup>21)</sup> 혼인은 곧 새로운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이기 때문이다. 노비의 생산성은 비단 노동에 의한 물적 자원 생산에만 있지 않다. 전근대·전통사회 일수록 어떤 자원보다도 인적 자원(사람)이 중요했다. 노비의 혼인은 바로 이러한 새로운 생명-새로운 노동력 탄생의 예고편이 되므로 긍정하는 것이다. 토지와 노비가 재산의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이었으니 노비의 수를 늘릴 수 있는 혼인은 환영할 만한 일이었다.

다만 여성 노비가 양반(사족 남성)과 혼인-결연하는 경우에는 또다른 문제가 있다. 이 때 여성 노비는 양반 남성과 결연하면서 양반 남성의 첩이 되는 신분적 상승이 이루어지지만, 주가의 구성원은 그녀를 비첩이라 하여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꺼려할 뿐 아니라 그의 소생 또한 서얼이라 하여 제약을 두기 때문이다.(「가법」 ㉠, ㉡) 대신 양반의 인적 배

21) 이혜정, 앞의 논문(2012), 앞의 글(2013) 참조.

트위크를 형성하는 데에는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여성을 인적 자원의 생산자로서 인식한 장면은 시간을 거슬러 주몽신화의 해모수와 유화의 강제 혼인 장면에서도 발견된다. 「동명왕편」에 해모수가 하백의 세 딸을 발견하고 ‘눈짓을 보내며 마음에 두었는데 이는 곱고 아름다운 것을 좋아함이 아니라 참으로 뒤 이을 아들 낳기에 급함이다.’라고<sup>22)</sup> 전하고 있다. <천지왕본풀이>의 천지왕이 총명부인을 찾아 천상계로부터 하강한 이유도 역시 비상한 인물을 얻을 꿈을 얻고 난 후였다. 그 인물이 자신의 골칫거리인 2개의 태양을 해결주리라 믿었기 때문이다.

<주몽신화>·<천지왕본풀이>와 <홍길동전>이 신화와 소설이라는 각기 다른 서사장르이고 목적으로 하는 세계관의 본질적 차이에서 비롯된 결과일 수 있겠으나, 해모수의 아들 주몽과 천지왕의 아들 대별왕·소별왕은 해모수와 천지왕의 욕망과 문제를 해결하고 부친의 위계를 승계한 반면 호부호형마저 거부당한 홍길동에게는 그러한 기회가 원천적으로 봉쇄되었다는 점은 달라진 부분이라 할 수 있다. 화해와 통합을 지향하는 신화의 세계와 달리 갈등과 차이에서 의미를 찾아가는 소설의 세계가 다른 까닭이다.

## (2) 노주의 양육자 및 보호자 혹은 대리자

### : 미성숙·미완의 노주 안전 보호 및 동반 성장

가내노비로서 유모나 남녀 몸종에게 주로 나타나는 특성이다. 모시는 상전의 생명과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집안살림을 맡아보

22) 城北有青河。青河今鴨綠江也。河伯三女美。長曰柳花。次曰萱花。季曰羣花。擘出鴨頭波。往遊熊心湫。自青河出遊熊心淵上。鏘琅佩玉鳴。綽約顏花媚。神姿艷麗。雜佩鏘洋。與漢皐無異。初疑漢皐濱。復想洛水沚。王因出獵見。目送頗留意。茲非悅紛華。誠急生繼嗣。王謂左右曰。得而爲妃。可有後胤。(李奎報, 「東明王篇 并書」, 『東國李相國集』, 『한국문집총간』, 한국고전번역원, 1991. 굵은 글씨 부분이 본문의 ‘ ’ 인용 부분이다.)

는 노비와 구별된다. 이들에게는 무거운 노동력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나이 어린 노비-동노(童奴), 동비(童婢)가 있을 수 있다. 고전서사에는 여 주인공의 동년배 시비가 몸종의 역할을 담당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초공본풀이>에 등장하는 느진덕정하님은 서사 전체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등장한다. 느진덕정하님은 노주 대감님에게 ‘진짓상을 들러 스랑 방에 드나들던 가내노비로서의 시비다. 자식이 없다고 절인으로부터 무시당한 대감님이 방문을 잠그고 기색이 없자 부인에게 소식을 알려주는 이 역시 그녀다. 뿐만 아니라 천하임정국대감님·지하짐진국부인님과 권제 삼문 받으러 온 승려(주자대선사)를 매개하는 역할도, 주자선생과 노가단 풍아기씨 사이를 매개하는 역할도 느진정하님에게 주어졌다. 가장 특이한 장면은 어렵게 얻은 딸의 이름을 짓는 데에 시비가 관여하는 부분이다.

짐진국부인이 말을 흐뵈

“대감님아 대감님아, 이 아기씨 일름(名)을 빚으로 지오리까?”

임정국대감이

**“느진덕정하님이 금마답을 나상 서 산 앞을 바래여 보라. 때는 어느 때가 꿩였느냐?”**

**“나산 보난 저 산 이 산 줄줄마다 산천초목이 구시월 단풍이 지었수다.”**

“이 아기씨 일름을 저 산 줄이 번고 이 산 줄이 번어 왕대월석 금하늘 노가단풍 즈지맹왕 아기씨엿 일름 지웁기 어찌흐겠느냐?”

“어서 걸랑 그리흐옵소서.”

**‘노가단풍아기씨’로 일름을 지웁데다.**

이름을 정하는 데에 직접 관여했음은 상전아기씨의 존재에 깊숙이 관련됨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

느진덕정하님의 양육자·보호자로서의 역할은 부모의 부재 상황에서 나타난다. 옥황의 명령으로 천황공사·지하공사를 맡게 된 아버지 임정국 대감님과 어머니 짐진국부인님은 홀로 떼어놓고 가야 할 딸 노가단풍아가

씨를 일흔여덟 비계살장, 마흔여덟 고무살장을 만들어 그 안에 가두어 놓는다. 그리고는 느진덕정하님(=여중)에게 “우리가 공스 살앙 올 때까지 궁기로 밥을 주곡 궁기로 옷을 주며 아기씨를 키웁시민 우리가 공스 살앙 왕중문세(奴僕文書) 돌려주마.”고 약속하고 느진덕정하님은 이행한다.

또한 의도하지 않은 임신을 하게 된 아기씨가 ‘몸천(육신)이 전과 굴질 못하고 밥에는 밥내 국에는 국내 물엔 펼내 옷엔 풀내 장엔 칼내’가 나 음식을 먹지 못하고 “먹구저라. 새곰새곰 연드래도 먹구저라. 들콤들콤 웨미즈도 먹구저라”하니 하루는 느진덕정하님이 짙은 굴미굴산 들어가 웨미자 연다랏 타젠 허난 높은 낭기 으름이라. 탈 수라 엇지니 열 손을 모아놓고 ‘맹천(明天) 7쁜 하늘님아 호련광풍이나 혼 주제만 붙어줍서. 웨미자 연다래나 털어지민 방울방울 주워당 아기씨상전을 맥여 살리리라.’며 기원하여 기어이 아기씨가 먹고 싶어 하는 연다래와 오미자를 구해다 준다.

<칠성본풀이>에도 비슷한 장면이 있다. 옛날 장나라 장설룡과 송나라 송설룡 부부는 오십이 다 되어 딸을 얻게 되었는데, 아기씨가 일곱 살이 되던 해 아버지와 어머니가 천하공사, 지하공사를 살러 가야만 했다. 딸을 데리고 갈 수 없었던 부모는 ‘마흔 여덟 고무살창을 만들어 놓고 고무살창 안에 딸을 가둔 후 공사를 살고 올 때까지 느진덕정하님에게 구멍으로 밥을 주고 옷을 주며 살리고 있으면 공사 후에 노비문서를 돌려주겠다고 약속한다.

<제석본풀이>의 금단춘·옥단춘도 있다. 금단춘과 옥단춘은 당금애기와 동갑으로 어렸을 때부터 ‘당금애기를 받들라’는 임무를 받고 성장한다. 후일 간신의 음해로 천자는 당금애기의 부친과 그의 아홉 아들을 모두 만리타국으로 귀양 보낸다. 남편과 아들을 귀양 보낸 당금애기의 모친은 백일기도를 위해 삼 년 계획으로 기도터로 나가고, 당금애기의 올케들 또한 친가로 떠난다. 이렇게 팔십여 명 식구가 빠져나가고 팔십여 칸 넓은 집에는 당금애기와 금단춘, 옥단춘만 남게 되었을 때 금단춘과 옥단춘의 역할이 드러난다.

석가여래는 시주를 핑계로 당금애기와 대면하기 위해 당금애기가 꼭꼭 걸어 잠근 열 대문을 진언으로 모두 열어버린다. 하지만 석가여래 앞에 먼저 선 사람은 금단춘과 옥단춘이다. 별당 밖의 사정을 알아보는 일에도 석가여래에게 공양미를 덜어줄 때에도 당금애기는 직접 나서지 않는다. 또 라인 금단춘과 옥단춘도 겁이 나기는 마찬가지였으나 그녀들은 기꺼이 당금애기의 대리자로 나서 당금애기를 보호한다. 하지만 금단춘·옥단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기씨는 결국 의도하지 않은 임신을 함으로써 거주와의 약속을 완수하지는 못한다.

금단춘·옥단춘과 같이 고전서사에는 주인아기씨와 동년배인 시비들이 상전이 위협에 처하게 되면 대리자·대체자로서 그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미성년 혹은 미완의 주인공-몸종과 달리 완성체로서 주인공-몸종은 직면한 세계에 보다 우월한 입장에서 위협을 타파하고 상대를 압도하기도 한다.

을디 합장비례 왈,

“귀딕 부인이 뉘신지 아지 못흐거니와, 덕분의 슬녀쥬옵소서.”

답왈,

**“느는 박부인의 시비여니와, 우리 아씨 명월부인이 조화를 베풀러 너를 기다린 지 오턴지라. 너는 극흔 도적이라. 썰니 목을 느리여 너 칼을 바드라.”**

을디 그 말을 듯고 디로하여 칼을 드러 계화를 치라 흐되, 경각의 칼든 팔이 심이 업서 놀닐 길이 업는지라. 하릴업서 하늘을 우러러 탄식 왈,

“디장뷔 세상의 느셔 만니타국의 디공을 바라고 왔다가, 오늘날 조고마흔 계집의 손의 죽을 줄 엇지 알니요.”

계혜 우셔 왈,

**“불상코 가련하다 세상의 장부라 위명하고 날 갖튼 녀즈를 당치 못흐느냐. 네 왕놈이 천의를 모르고 예의지국을 침범코즈 하여 너 갖튼 구상유취를 보닛거니와 오날은 네 명이 너 손의 달넛시니, 밧비 목을 늘이여 너 칼을 바드라.”**

<박씨전>의 여주인공 박씨의 시비 계화가 호장 용울대를 맞아 대적하는 장면이다. 계화는 박씨가 이시백과 혼인한 후, 흉한 외모 탓에 후원 피화당에서 홀로 지낼 때도 박씨를 충실히 보필했을 뿐만 아니라 박씨와 외부의 소통을 위해 매개자·전달자의 임무를 맡은 노비이다. 그리고 급기야 북방 호적이 나라를 침범하고 조선의 왕과 백성을 모욕할 때 박씨의 대리자로서 호장과 대적한 인물이기도 하다. 인용문에서도 느껴지듯 계화의 모습은 호장보다 우위에서 호령할 뿐 아니라 용울대의 업신여김에 ‘웃으며’ 대응하며 당당히 목숨을 요구하는 대장부의 모습 그대로다.

이 장면에서 계화의 모습과 말은 계화 자신이기보다는 박씨의 모습이며 박씨의 의중이다. 직접 박씨를 세울 수도 있었겠으나 편견에 빠진 남성 세계에 대한 비판, 무능한 양반 지배계층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를 가장 낮은 신분인 여성 노비 계화에게 부여함으로써 그 강도를 높이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옥루몽>의 손삼랑 역시 <박씨전>의 계화와 비슷한 경우지만 조금 더 독특한 인물이다. 엄격히 말해서 손삼랑이 비자라고 할 수 있는 명확한 장면은 없다. 다만 강남홍의 시비인 연옥의 이모라고 정체가 설명되면서 그와 비슷한 신분으로 이해되고 물에 투신한 강남홍의 목숨을 구하면서 자연스럽게 강남홍의 시비 아닌 시비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계화와 다른 점이라면 손삼랑은 처음부터 여장부의 모습으로 등장한다는 점이다.

강남홍의 서사는 명나라 장수로서 등장하는 군담 부분에서 두드러진다. 손삼랑에 의해 가까스로 목숨을 건진 강남홍은 백운도사의 제자가 되어 복서(卜筮), 의약, 천문, 지리는 물론이고 병법과 검술, 무예, 둔갑술까지 수련을 받고 명나라 제일의 장수로 활약하는데 그 곁에 항상 손삼랑이 함께한다. 서사 문면에 손삼랑의 백운동 수련과 관련한 언급은 없지만 강남홍과 함께 전장에서 활약하는 손삼랑을 보면 짐작 가능하다. 손삼랑의 실력이 강남홍에게는 미치지 못했으나 강남홍은 손삼랑을 한발 앞서 늘 적군에 대적하게 함으로써 기선을 제압하는 전략을 보여준다. 적군을 속

이고 적진을 혼란시키는 전략을 어김없이 수행하는 손삼량은 강남홍의 대리자며 동료라 할 수 있다. 후에 손삼량은 천자로부터 황금을 하사 받는다.

### (3) 암묵적 경쟁자 혹은 극단적 적대자

#### : 노주를 향한 시기·질투, 적대자로 변화 가능

비슷한 또래의 노주와 노비 사이일 경우 간혹 충이라는 이념적 윤리가 아닌 인간적 경쟁심리나 질투, 시기 등의 기류가 느껴지기도 한다. 이것은 서사 문면에 직접적으로 드러나기도 하지만 고착된 노주 관계의 시선에서는 포착되기 쉽지 않은 등장인물 사이의 감정선이다.

앞서 <세경본풀이>에서 상전인 자청비아기씨는 여종 정술택이에게 어떻게 손이 그렇게 하얗고 고운지 묻는 장면을 인용했다. 그 물음에 정술택이가 주천강 연못에서 빨래를 하다 보니 손이 하얗게 고와졌다고 대답한다. 그리고 정술택이의 말을 곧이곧대로 들은 자청비아기씨는 결국 열 다섯 살까지 입던 옷을 바구니에 담아 주천강 연못에 빨래를 하러 나선다. 서사 전개상 자청비가 문도령을 만나도록 이끄는 필연적 장면이겠으나 느 진덕정하님 정술택이의 말이 맹랑하다. 아무리 비범하고 현명하다고 해도 집안 살림이라고는 해본 적 없는 상전 아기씨에게 거짓을 말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손이 하얗고 고운 이유가 어찌 주천강 연못에서 매일같이 빨래를 했기 때문이겠는가.

바로 이 장면에서 바로 노주 자청비아기씨와 정술택이 사이에서 ‘여성’으로서의 경쟁심리, 질투가 감지된다. ‘하얗고 고운 손’은 여성성을 의미하며 무의식중에 자신의 여성성을 지각한 자청비의 질투가 담아 던진 질문이 ‘어떻게 하면 하얗고 고운 손이 되는가’였던 것이다. 이 순간 자청비에게 정술택이는 시중드는 노비가 아닌 자신보다 성숙한 여성으로 서있는 것이다. <세경본풀이>에서 자청비의 여성성 자각은 매우 중요하다. 자청비는 생산신·곡물신으로 좌정하기 때문이다.

자청비의 여성성을 감지한 또 한 명의 인물이 바로 남종 정수남이다. 하라는 일은 하지 않고 가축인 마소를 모두 먹여치운 것도 모자라 문도령을 기다리는 아기씨를 산속으로 유인하여 능욕하려 한다. 정수남의 흑심을 알아챈 자청비가 소원이 무엇이나고 묻자 ‘은찢 ㄱ뜨 손이나 문직아 보게, 입이나 맞추어 보게, 헛테 ㄱ뜨 허리나 안아 보저’라고 대답한 정수남은 남종이 아니라 아름다운 여성을 탐하는 남성일 뿐이다. 또한 문도령을 만나고자 하는 자청비를 속여 만남을 방해하고 남몰래 자청비를 취하려는 문도령의 경쟁자이기도 하다.

<운영전>의 특에게서 정수남의 흔적이 보인다. 김진사의 노비이기도 한 특은 이전까지 고전소설에서 볼 수 없는 절대적 악인형으로 주목 받았다. 영리하고 충심을 다하는 노비라고 믿는 김진사를 절망과 좌절의 길로 몰아가는 인물이기도 하다.

무릇 특은 이 귀중한 보물을 얻은 이후에 저와 진사를 산골짜기로 유인하여 진사를 죽이고, 저와 재물을 자기가 차지할 계획을 품고 있었습니다. (蓋特意, 得此重寶而後, 妾與進士, 引入山谷, 屠滅進士, 而妾與財寶, 自占之計)

“궁녀가 나오지 못했으니, 그 재물은 하늘이 나에게 준 것이로다.” (宮女不出來, 其財寶, 天與我也)

“진사는 오늘 빨리 죽고, 운영은 내일 다시 살아나서 특의 배필이 되게 해주십시오.” (進士今日速死, 雲英明日復生, 爲特之配)

김진사와 운영의 만남을 적극적으로 도왔던 특의 본심이 드러나는 부분이다. 첫 문장은 천상으로 복귀한 운영이 유영에게 특을 설명하는 부분이며, 둘째·셋째 문장은 특의 독백이다. 특은 김진사와 운영이 궁에서 빠져나와 궁 밖에서 함께 살고자 하는 바람을 듣는 순간부터 본격적으로 김진사를 속이며 운영이 궁 밖으로 내보내는 운영의 재산을 갈취하고 김진사를 살해한 뒤 운영을 차지하겠다는 속셈이었던 것이다. 특에게 김진사는 더는 노주도 상전도 아니었다. 재물과 여성을 사이에 둔 경쟁자며 적대

자일 뿐이었다.

시비가 자신이 모시는 아가씨를 노주 혹은 상전으로 여기지 않고 질투와 시기의 대상으로 여기고 앙심을 품는 경우는 <숙영낭자전>의 매월에게서도 발견된다.

매월이 생각하되,

‘서방(書房)입이 낭주와 작비(作配)호 후로 지금 팔연(八年)의 나를 도라보지 안이호니 너 간장(肝腸)이 귀귀귀귀 석는 줄 뉘가 아라보리요?’

호고

‘잇썩을 만나 낭주를 음회(陰害)호면 그 안이 상쾌(爽快)호는가?’

꿈속에서 수경을 만나 첫눈에 반한 이후로 수경낭자를 잊지 못하는 선군에게 수경은 시비 매월을 먼저 천거한다. 매월에게서 위로를 받으며 만 날 날을 기다리라는 의미였다. 하지만 선군은 매월을 취하기는 했으나 진심이 아니었기 때문에 수경과 혼인한 이후로는 매월을 외면하고 만다. 매월로서는 통분할 일이었으니 그 분한 마음이 수경을 음해하는 마음으로 변하며 주인공의 적대자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선군이 과거차 집을 비운 사이 금은으로 돌쇠를 매수하여 수경과 통간한 일처럼 꾸미고 거짓 자백 함으로써 수경을 고난에 빠뜨리는 전형적인 악인형 인물로 기능한다.

매월은 수경에 대해 선의의 경쟁자에서 적대자로 변화했다기보다는 어느 시비와 다를 바 없던 존재였다가 선군과의 친압 이후 수경을 경쟁자로 그리고 적대자로 인식하게 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금은으로 매수한 돌쇠의 도움으로 수경에게 통간의 누명을 씌워 자결케 하는 잔인한 면모를 보이게까지 한다. 결국 선군이 복귀하였을 때,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고 매월은 처형당한다. 노비의 죄책을 엄격히 하라는 권고에 공감하고 사형(私刑)이 용인되던 시기였기에 가능한 처사였다.

앞서 <숙향전>의 사향은 언급된 바 있다. 가내노비로서 장승상택 살림

살이를 도맡아 관리했던 인물이었다. 그 일과 지위를 숙향에게 빼앗기게 되면서 양심을 품게 되는 인물이다. 숙향에게 누명을 씌우고 모함을 하여 숙향이 더는 장승상 댁에 머물지 못하도록 괴롭히는 인물이다. 장승상 댁에서 사향의 위상은 다른 노비들이 사향을 두려워할 만큼 특별한 것이었다. 장승상家는 노비가 삼천여 명이고 전답이 수만 석지기며 금은이 수십만 수레에 이르는 거부였다고 밝히고 있으니 그것을 관리하는 사향의 지위가 남달랐을 것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이를 모두 숙향이 관리하게 되었으니 사향으로서는 억울할 만도 하였을 것이다.

흥미로운 부분은 고전소설에서 슬거노비와 외거노비를 특별히 구별하여 지칭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은데, 숙향의 누명에 장승상의 화가 풀리지 않자 장승상부인은 숙향에게 일단 근처에 있는 종의 집에 머물라고 권하는 것으로 보아 장승상家는 외거노비까지 거느리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김학공전>은 조선시대 도망노비와 추쇄, 추노라는 사회적 현상이 반영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노주의 가족을 몰살하는 박명석의 선동은 단순히 금은보화 탈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전을 죽이고’ 새로운 공간에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로 볼 수도 있으나 그것은 매우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박명석은 단순히 개인적 통분이나 질투, 욕구 불만에서 기인한 악행이 아니라 질서와 체제의 붕괴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이 다른 노비들의 경우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 (4) 경험적 정보 제공자 혹은 행동적 지략가

##### ：사건의 발단 및 노주의 판단 조력, 극단적 적대자

서사 내에서 어떤 사건이나 상황에 대한 정보 제공자, 지략가적 속성을 지닌 노비들의 활약은 매우 크다. 다만 자신의 정보력과 지략을 긍정적으로 활용하느냐 부정적으로 활용하느냐에 따라 선인형과 악인형으로 구분된다.

일회성 장면에 등장하지만 노주에 비해 행동반경이 넓고 운신이 자유로운 노비들은 노주가 원하는 정보를 알아내 제공한다. 그들은 대개 ‘글을 아는’ 인물로 설정되며 습득된 정보로 사건이나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지니기도 한다.

<숙향전>에서 정렬부인이 된 숙향이 장승상 댁을 찾았을 때, 장승상 부인은 정렬부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싶어 시녀 춘홍에게 묻는다. 춘홍이 들은 대로 답하기를, 그 부인을 직접 보지는 못했기에 용모가 어떠한지는 알 수 없으나 부인이 영춘당에 들러 읊은 풍월을 모든 시녀들이 외우니 그 부인께서 ‘글을 잘 짓는가 싶다’고 답한다. 인물평이 가능한 시녀임을 알 수 있다. 부인이 읊은 글을 외울 수 있는지 다시 묻자, 춘홍은 즉시 풍월을 외워보였다. 춘홍의 이러한 정보는 잃어버린 숙향에 대한 장승상 부인의 그리움을 유발시킨다.

단편적이고 일회적이기는 하지만 틈틈이 숙향의 소식을 전하고 숙향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는 인물들도 모두 노비들이다. 서사에서는 단 한 번 언급되고 사라지는 인물들이기는 하나 사건을 일으키고 서사를 진행하는 데에 일조하는 인물들이라고 할 수 있다.

<옥루몽>에 등장하는 강남홍의 시비 연옥의 활약은 그다지 크지 않지만 처음 강남홍과 양창곡의 만남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이라 할 수 있다. 연옥은 ‘글을 배운 여자’로서 양창곡의 언행과 품성을 떠보기 위해 강남홍이 염탐 아니 염탐을 시킨 시비다. 양창곡이 읊은 시를 그대로 외워 전함으로써 강남홍이 마음을 결정하는 데 기여한다.

경험적 정보 제공자 혹은 행동적 지략가로서 노비가 항상 선인형 인물에만 부여되는 속성은 아니다. 악인형·악의적 인물들이 오히려 정보 획득에 빨라지며 계책을 행동으로 옮기는 판단에도 순발력을 발휘한다.

<운영전>의 남주인공 김진사의 종 특은 그 이전 시기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절대 부정의 인물형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처음 등장은 꼭 그렇지만도 않다. 미온적이고 우유부단한 상진인 김진사의 갈등을 정리하고 행

동을 추진시키는 역할을 담당했기 때문이다. 운영과 만남을 위해서는 월궁을 해야 했던 김진사가 너무나 높은 궁벽에 포기하려 하자 사다리를 만들어주어 궁을 넘게 해준 이도 특이였으며 눈발을 걸으면 발자국 소리가 날 수 있으니 가죽신을 만들어 준 이도 특이였다. 만약 특이라는 인물이 없었다면 김진사와 운영의 만남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렇듯 김진사의 조력자로서 충분히 기능할 수 있는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소설은 특을 파렴치한 무리한으로 만들어버린다.

<사씨남정기>의 납매는 교씨의 시비로 등장한다. 즉 처음부터 주인공 사씨와 적대적 관계의 위치에서 출발하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교씨가 처음 아들을 낳지 못할까 염려하자 십량이라는 술사를 불러들여 여태를 남태로 바꾸는 데(실제로 바꾸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기여한다. 이 일을 이유로 십량은 교씨의 신임을 얻어 총명교힐(聰明狡黠)한 교씨를 더욱 간악한 인물로 이끈다. 납매는 또다시 사씨의 시비인 동생 설매를 부추겨 사씨의 옥지환을 훔쳐내고, 교씨의 간부 동청과 합작하여 교씨의 아들 장주를 죽인 후 사씨의 시비 춘방에게 누명을 씌워 결국 사씨를 쫓아내기에 이른다. 계책을 세우고 행동으로 옮기는 데 탁월하며 매수·협박·무고 등 악행의 저지르며 서사를 진행시킨다.

<옥루몽>의 춘월은 황소저의 시비다. 황소저는 양창곡의 제2처이지만 양창곡의 입장에서는 마지못해 결행한 혼인이었기 때문에 황소저로서는 양부에서의 입지나 면목이 서지 않는 인물이기도 하다. 제1처 운소저에게는 함부로 대적하지 못하니 애꿎은 선량만을 끊임없이 모함하고 괴롭히는 데 몰두한다. 이때 황소저를 부추기는 인물이 춘월과 황소저의 모친 위부인이다. 춘월은 자신의 행동에 합당성을 입증하고자 특히 위부인을 공략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다 춘월은 70세의 노파 자객을 불러들여 선량을 살해하려 하나 오히려 노파에게 양쪽 귀와 코를 잃어버린다.

이때부터 춘월은 선량의 적대자를 자처한다. 이전까지 선량은 황소저의 적대자로서 황소저의 보복적 행위를 춘월이 보조하는 데 그쳤다면, 선

량을 자신의 적대자로 천명하하면서 춘월은 선량을 해치기 위해 온갖 술수를 만들어내며 스스로 실행에 옮긴다. 즉 춘월은 적극적 지략가의 모습 이되, 자신의 능력을 긍정적 방향으로 발전시키지 못한 채 악인형 인물에 머문 인물이다.

#### 4. 고전서사에 형상화된 노비의 존재성

고전서사에는 다양한 역할과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노비들이 때로는 단편적으로 때로는 비중 있게 등장한다. 반드시 중심서사와 관련되지도 않고 단편적이거나 일회적 장면에서는 고전서사의 관습적 표현에 지나지 않을 때도 있다. 하지만 ‘노비’라는 단어가 던지는 강렬한 의미에 지나치게 함몰되지 않는다면 고전서사에 등장하는 노비에게서 보다 다양한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다. 특히 동일한 장면에서 두 가지 이상의 속성을 드러내는 경우도 있어 인물들에게 입체성이나 역동성을 부여할 수도 있다.

그동안 노비는 소유주에게 ‘종속’된 존재, ‘억압’받는 존재, ‘저항’하는 존재라는 틀에 독자도 연구자도 갇혀있었기에 ‘인간’이었던 노비, ‘일상의 삶’을 살았을 노비의 모습을 발견하기 어려웠을 뿐이다. 종속된 존재였기 때문에 주인에게 충성을 강요당했고, 인간으로서 욕망과 욕구를 성취하는 데에 제약을 받는 존재였기 때문에 비극적이었고, 결국 주체적인 자아를 획득하기 위해 저항할 수밖에 없던 존재로 노비를 규정하는 일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본 논의는 반드시 모든 노비가 그러한 부당한 세계의 피해자로서만 스스로를 인식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전제로 평범한 인간으로서의 노비, 그 부당한 세계 속에서나마 나름대로 주체적 삶을 살았을 노비의 모습을 고전서사에 형상화된 노비의 모습에서 발견해보고자 하였다.

노비라는 신분적 특성상 노주와의 관계를 벗어날 수 없지만, 그 관계

맺음을 반드시 제어하는 자-구속받는 자의 관계로만 파악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장면마다의 특징을 추출해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고전서사에 형상화된 노비들이 다양하고 입체적인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첫째, 노동력의 제공자 및 관리자이며 생산자의 속성을 발견할 수 있다. 실재했던 노비의 본질 또한 ‘노동력’이다. 그리고 현실의 양반-지배계층은 무자비하게 노비의 노동력을 착취해간다. 노비의 노동은 양반-지배계층의 생존과 삶을 보장해주는 조건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밥 짓고 빨래하고 나무를 베어 땀감을 마련하고 가축을 돌보는 노비의 삶이 고전서사에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본 논의는 그 장면에 등장하는 노비를 ‘생존과 삶의 주체’로 파악하고자 한다. 물론 실제 생존과 삶의 주체로서 노비는 고단하고 주어지는 보상 또한 넉넉하지 않았다. 노비의 주체성을 말하는 일이 허울 좋은 억지일 수도 있다. 하지만 양반-지배계층이 왜 그토록 노비를 상대로 이기적인 욕심을 버리지 못했던 것일까 생각해 보면 억압의 이면에는 노비에게 의존해야만 하는, 의존할 수밖에 없는 양반-지배계층의 절박함도 자리하고 있었다고 본다. 양반은 생존을 위한 어떤 행위-노동을 자발적으로 해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다만 생존과 삶의 유지를 위한 열쇠를 지닌 노비는 언제든지 노주를 배신할 수도 있는 존재이기도 했다. 그들이 노주에게 불만이나 앙심을 품게 되면 악인형 적대자로 변할 수 있는 가능성도 크다. 문학의 창작자이며 향유자였던 양반-지배계층은 이러한 노비의 속성을 서사문학에 극대화하여 등장시키고 가차 없이 징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노주의 양육자이며 보호자임과 동시에 대리자의 속성을 발견할 수 있다. 미성숙하고 미완의 노주를 성숙한 완전체로 성장시키는 데에 노비가 일정 부분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유모나 시비, 시비 중에서도 몸종으로 등장하는 노비들이 그 역할을 맡았는데 실제도 이와

다르지 않았다. 현실과 구별되는 부분이라면 허구세계인 고전서사에서는 양육자며 보호자였던 시비가 노주(주인공)와 함께 성장하는 모습이 어렵지 않게 발견된다는 점이다. 현실에서는 노주와 함께 성장하고 자아 성취를 이룩하는 일은 매우 드문 일이었기 때문이다.

고전서사에서 노주와 함께 성장 발전한 시비는 노주의 동등한 대리자로서 기능하기도 한다. 본 논의에서는 비교적 긍정적 대리자로서 활약하는 노비를 예문으로 제시하였으나 노주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노비가 등장하는 작품도 있다. 이 또한 노비가 자신은 물론 노주의 생존과 삶에 관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암묵적 경쟁자인 동시에 극단적 적대자로서 속성을 발견할 수 있다. 노주를 자신이 모셔야 할 상전으로 여기지 않는, 내색하지 않지만 질투와 시기의 대상으로 여기는 노비들이 이러한 여기에 속한다. 이 경쟁 심리가 극대화하거나 부정적인 외부 자극이 작용하면 서사에서 극단적인 적대자(특히 악인형 인물)로 그 역할 기능이 변화하기도 한다. 이렇게 선인형에서 악인형으로 변화하는 노비들이 매우 잔혹하게 주인공을 모함하고 괴롭히게 되는 것이다.

넷째, 경험적 정보 제공자이며 행동적 지략가의 속성을 발견할 수 있다. 고전서사에서 소식을 전하고 정보를 알아내어 제공하며, 인물과 인물 사이의 관계맺음에 기여하는, 사건과 서사에 기여하는 노비들이다. 이러한 역할을 담당한 노비들이 단편적으로 등장과 퇴장을 반복하면서, 스스로는 물론 주인공을 끊임없이 행동하게 하고, 갈등을 해소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도록 이끄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현명하고 영리하며 부지런한 인물들이다. 하지만 그러한 노비들이 반드시 서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오히려 악행을 부추기고 실행하며 주인공들이 난관에 부딪히도록 조종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감정과 욕망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기도 한다.<sup>23)</sup>

셋째와 넷째 모두 살아있는 인간으로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이 비록 악의와 관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인물 자체는 독립적으로 선택하고 행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 논의는 일부이기는 하지만 고전서사 속에서 활약하는 노비의 다양한 얼굴을 발견함으로써 노비에게도 보다 생명력 있고 역동적인 캐릭터를 부여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었다. 이 부분이 노비와 고전서사를 관련시킨 기존의 연구와 구별된다고 할 수 있다.

본 논의가 발견하고자 했던 노비의 모습은 ‘노비가 지닌 일상적 삶의 존재성’이다. 이때의 ‘일상’이란, ‘삶의 현실을 끊임없이 경험하고 해석할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파생하는 긴장과 갈등 속에서 부단히 변화를 모색하는 삶의 영역’을 의미한다는 견해에 입각한 일상이다. 그리고 그 일상에 존재한 노비들은 노비가 아닌 ‘사람-인간’이었음도 재확인할 수 있었다. 그들이 뺏어내는 존재성은 ‘생존-삶-살아있음’을 향한 강렬한 몸짓이라고 보았다. 이 강렬한 몸짓 때문에 양반-지배계층은 노비들을 자제시키고 억압하려 했는지도 모를 일이다.

때문에 사회적 국가적 제도에 기대어 가정마다의 규율에 의해 가려져 있는 노비의 실상이 오히려 허구의 세계 속에서 더 솔직하게 표현될 수 있었다고 본다. 노주-상전의 삶을 유지시키며 사회적 질서 체제의 바탕이 되는 인물, 미완의 노주를 양육하고 보호하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시기와 질투를 고스란히 드러내는 인물, 속이고 괴롭히며 자신의 지위를 확보하려 하고 영특함으로 문제해결에 적극 가담하는 인물, 그들이 바로 노비였다.

오히려 후대의 사람들이 ‘노비’라는 제도적 틀에 노비를 가두어두지 않

- 
- 23) 서사에는 주인공과 주인공을 조력하는 인물, 주인공을 꺾으려는 적대적 인물들이 공존하기 마련이다. 이는 현실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고전서사의 적극적 적대자·절대적 악인의 형상을 노비에게 부여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훨씬 많다. 양반이 부정적·악인형 인물로 등장하더라도 극단적 악행을 양반이나 노주에게 부여하기를 꺼리는 경우, 시비인 노비에게 그 역할을 담당토록 하는 편이 오히려 작가로서 부담을 더는 일이었을 수도 있다.

았는지 반성해볼 필요가 있다. 지배계층-양반도 알고 있었고 인정했던 실제의 노비의 모습은 고전서사 속에도 미약하게나마 살아 숨쉬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sup>24)</sup>

---

24) 본 논의에서 제시하지 못한 고전서사 작품들이 더 많이 남았다. 지면상 자료로 삼았던 작품들을 모두 다루지 못한 점이 아쉽다. 특히 문헌설화(야담)에 등장하는 노비들의 서사는 '사대부 양반 남성'의 관점과 시각이 관여했다는 측면에서 보다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이번 논의에서는 제외하였다. 고민한 대로 심사평에 문헌설화(야담)의 제외에 대한 우려가 있었으나 본 논문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 언급한 대로 작가적 의식이 고려되어야 했기에 후속 논문을 통해 면밀히 살피고자 한다. 이에 대해 심사자분들의 양해를 바란다.

## ■ 참고 문헌

- 『東國李相國集』 권3 「東明王篇 并書」, 『한국문집총간』 1-2, 한국고전번역원, 1991.
- 朴弼周, 「戒論家衆」, 『黎湖集』 권32 「雜錄」, 『한국문집총간』 197, 한국고전번역원, 1997.
- 鄭齊斗, 「家法」, 『霞谷集』 권7, 『한국문집총간』 165, 한국고전번역원, 1995.
- 고경석, 「기획2-노비의 사회사 : 노예와 노비」, 『역사비평』 36, 1996.8, 306-314쪽.
- 김건태, 「농사짓는 작인, 수취하는 지주-양반들의 농업경영」, 『조선시대사』, 푸른역사, 2015, 179-182쪽.
- 김석배, 「推奴系漢文短篇研究」, 『문학과 언어』 7, 문학과 언어학회, 1986, 27-50쪽.
- 김수진, 「노비를 보는 몇 개의 시각」, 『민족문학사연구』 53, 민족문학사학회 민족문학사연구소, 2013, 224-254쪽.
- 김순진, 「韓國 奴婢說話 研究」, 이화여대 대학원 박사논문, 1990, 1-154쪽.
- 김정석, 「<推奴談>의 소설적 변모와 그 의미」, 『반교어문연구』 4, 반교어문학회, 1992, 158-183쪽.
- 김종균, 「고소설에 나타난 노비의 성격 연구」, 건국대 대학원 석사논문, 1996, 1-156쪽.
- 김종성, 『조선노비들-천하지만 특별한』, 역사의 아침, 2014, 4-267쪽.
- 김현룡, 「고소설의 애정 관련 노비 연구」, 『인문과학논총』 28, 건국대 인문과학연구소, 1996, 1-18쪽.
- 서중문, 「층노형 이야기와 반노형 이야기의 다툼」, 『고전문학의 사회·역사적 소통』, 박문사, 2009, 27-50쪽.
- 송양섭, 「반계 유형원의 奴婢論」, 『한국인물사연구』 1-9, 한국인물사연구회, 2013.3, 371-403쪽.
- 이병욱, 「영웅소설에 나타난 노비문제의 성격과 기능」, 경희대 대학원 석사논문, 1996, 1-94쪽.

- 이혜정, 「16세기 노비의 삶의 의식세계」, 경희대 대학원 박사논문, 2012, 1-207쪽.
- \_\_\_\_\_, 「노비의 삶에 접근하는 몇 가지 방법」, 『역사연구』 24, 역사학연구소, 2013.6, 13-139쪽.
- 임학성, 「조선시대 奴婢制의 推移와 노비의 존재 양태」, 『역사민속학』 41, 한국 역사민속학회, 2013.3, 73-99쪽.
- 전경목, 「양반가에서의 노비 역할」, 『지방사와 지방문화』 15-1, 역사문화학회, 2012.5, 217-261쪽.
- 전경욱, 「<김학공전> 이본고」, 『고전문학연구』 9, 한국고전문학회, 1994, 293-320쪽.
- 전형택, 「서평: 조선전기 노비 연구의 새로운 지평」, 『사회와 역사』 52, 한국사 회사학회, 1997.11, 341-352쪽.
- \_\_\_\_\_, 『조선 양반사회와 노비』, 문헌, 2010, 15-265쪽.
- 정병설·마크 피터슨, 「조선문학과 노비」, 『진단학보』 87, 진단학회, 1999.6, 47-70쪽.
- 정준식, 『한국 노비서사의 논리와 미학』, 월인, 2005, 5-236쪽.
- 지승중, 「기획2-노비의 사회사: 노비와 양반」, 『역사비평』 36, 역사비평사, 1996.8, 315-324쪽.
- \_\_\_\_\_, 「조선 전기의 주도 관계와 사노비의 성격」, 『사회와 역사』 3, 한국사회 사학회, 1986, 11-70쪽.
- 최선경, 「『청구야담』 소재 여노비담의 존재 양상과 의미」, 『인간연구』 29, 가톨릭대학교 인간학연구소, 2015.7, 135-159쪽.
- 최윤오, 「반계 유형원의 실학과 『磻溪隨錄』 讀法」, 『지역과 역사』 32, 부경역 사연구소, 2013.4, 189-242쪽.

■ Abstract

## **A Study on the Presence of Nobi in the Korean Classical Narratives**

Kim, Na-Yeong  
Sungshin Univ.

This study aims to show how Nobi was perceived in the Joseon Dynasty by examining the presences of Nobi described in the Korean classical narratives. The scope is limited to Korean folktales and classical novels. This study attempts to focus on Nobi not as the subjugated but as the subjective human being.

This study concludes that Nobi is observed in the classical narratives as the four categories as follows: (1)A labor provider, a producer and a manager: infrastructure of the social system (2) A caregiver, a protector, and an agent for the Nobi-owner: protection of and accompanied growth with the immature Nobi-owner (3)An implicit competitor or an active antagonist: a possible transformation as a jealous antagonist (4)An experienced advisor or a strategic behaviorist: an assistant to or antagonist against the Nobi-owner.

The study of Nobi should be broken away from stereotypical images of tragic subjugated figures; instead, it should extend its scope to perceive Nobi as an active and three-dimensional character. This study claims that it is Nobi's "strong will for life" that creates these new active images. This study suggests that Nobi should be analyzed as a human being with persistent will for life, not only as a

stereotypical “resistant” figure under “oppression.”

This study observes that the Nobi-owner/Yangban officially and legally subjugates Nobi because they recognizes their lives depend on and coexist with Nobi. Such a perception is secretly reflected in the fictional world of folk tales and classical novels.

Key words : Nobi, ordinary life, subjective, Korean classical narrative, producer, manager, caregiver, competitor, antagonist

투고완료일 : 2016. 5. 12. 심사완료일 : 2016. 6. 15. 게재확정일 : 2016. 6. 20.

